

창원일보

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동, 자투리땅에 유채꽃씨 파종

(기사입력: 2019/03/11 14:35)

조윤정 기자 



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동은 관내에 방치된 자투리땅에 유채씨앗을 파종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.

이날 행사는 주민, 공무원, 공공근로자 등 총 50여명이 참여해 기존에 조금씩 쌓여있던 폐기물을 정리하고 땅 파기와 흙 고르기, 퇴비 주기, 씨앗 뿌리기 등을 하면서 구슬땀을 흘렸다.

오는 5월 중순쯤 노산동 안길에는 유채꽃으로 노랗게 물들 것으로 예상된다.

노산동은 2014년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지역 내 협소한 골목길을 다듬고 정비, 지금은 역사와 추억이 있는 가고파의 거리로 조성돼 깨끗하고 알뜰한 새 동네로 재탄생하게 됐다.

/조윤정 기자